



주 제:	“깨어 있어라.”	“음력 설 미사”	2009년 1월 25일
복음 묵상:	[루가 12,35-40]	[민수 6,22-27]	[야고 4,13-15]

행복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행복의 기준일 수 있고, 재물이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이 행복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깨어 있고 나의 육신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이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모으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득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았어야 할 진짜배기를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모님처럼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 진짜 행복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철구 신부님 강론중에서)

**1. 가족 동점 및 기도 요청**

- **알토의 신행주 요세피나 자매님의 쾌유를 빌면서** 알토파르트에서 매일 시간을 정하여 각자 묵주기도를 같은 시간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30 분/ 오후 1시 / 오후 9시 30 분.
- 지난주 첫번 임원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신임,전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별지로 일요일 배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별식에 의무적으로 봉사하기로 하였으며 부족한 연습시간을 평일에 추가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지사항에 각 파트별 연습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 예로니모 단장님과 도미니카 자매님:** 1/25, 2/1 두주일간 못나오십니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2 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1. **금주 1/25(일) 미사는 설날 미사로 드리니 모든 여성단원은 한복을 착용**하시고, 남성은 정장을 하여주십시오.
2. 다음주일부터 미사후 연습이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각 파트별로 주중 연습을하기로 하였습니다.  
 알토 파트: 2/9(월) 오전 11시 최 효원 도미니카 자매님택  
 남성부 (테너, 베이스): 격주 금요일 저녁 9시 (최 단장님택 2/6 일 첫 모임)  
 소프라노: 추후 결정

**알림:**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곡이 아래와 같이 수록되어 있으니 틈틈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거이 모든 곡을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음원을 본당 성가대 웹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2.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 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 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 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1분 명상

♡ 행복을 열어가는 사람들 ♡



짧은 순간  
짧은 한마디에서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느낌으로  
살아있음이 행복임을  
가슴으로 느껴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수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도 또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내게 행복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나도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당신은 행복을 열어가는 글을 읽으므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었네요.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1 히브 10,36).”